

이 금 속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금융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금융소외에 관한 연구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을 중심으로-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은진

금융 산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금융소외 관한 연구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을 중심으로-

이 금 속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은진

인 준 서

문은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현대 생활환경의 필수 인프라인 금융 산업의 공간적 분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집중과 소외가 발생하며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금융이 집중하는 지역과 소외되는 지역을 확인하고자 했다.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른 분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상을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비 제도권 금융기관인 대부업까지 확장하였다. 주로 수도권 지역의 은행과 대부업을 중심으로 입지분포의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특화도를 산출하여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분포를 본 후 수도권 지역 내 은행과 대부업을 따로 분류하여 수도권에 입지한 은행과 대부업의 밀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적 상관분석을 진행하여 은행과 대부업의 군집패턴의 차이를 확인하고 은행과 대부업이 집중하는 지역과 소외되는 지역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의 은행과 대부업, 서울 지역의 은행과 대부업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은행, 수도권 대부업, 서울 은행, 서울 대부업을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금융기관 분포에 한정되었던 연구와 달리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 차이로 인한 금융의 집중과 소외의 문제를 인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서울시의 사례를 통하여 경제적 변수인 지방세와 기초생활 수급 가구 수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의 입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변수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II. 선행연구 고찰	8
1. 금융업의 분포 및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8
2. 금융소외에 관한 선행연구	11
1) 금융소외에 대한 개념	11
2) 금융소외 관련 연구	12
III. 금융 산업의 발달 및 현황	15
1. 금융업의 발달 및 현황	15
2. 은행의 발달 및 현황	18
3. 대부업의 현황 및 추이	23
IV.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의 분포 특성	28
1. 분석방법	29
1) 커널 밀도(Kernel Density)	29
2) 공간적 자기 상관 분석	30
2. 수도권 금융 및 보험업의 분포 특징	35
3. 은행의 분포 특징 분석	40
4. 대부업의 공간적 분포 특징 분석	45

V.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	49
1. 다중회귀분석	50
2. 다중회귀분석 결과	52
1)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	53
2) 서울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	56
VI. 결론	6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은행 및 대부업의 산업분류표	5
<표 2> 금융 산업 변화율	17
<표 3> 전국 대비 수도권 금융업 비율 변화	17
<표 4> 은행업체 수 증감률	21
<표 5> 은행 종사자 수 증감률	20
<표 6> 대부업체 증감률	26
<표 7> 대부업체 수 증감률	26
<표 8>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27
<표 9>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별 신규대출	27
<표 10> LISA의 유의수준에 따른 공간적 상관관계	33
<표 11> 공간적 자기상관의 유형 및 해석	34
<표 12> 수도권 금융 및 보험업 특화지역	38
<표 13> 은행 LISA 결과 지역구분	43
<표 14> 대부업 LISA 결과 지역구분	48
<표 15> 분석에 사용된 변수	52
<표 16> 단계선택법을 통한 변수 선정	53
<표 17> 수도권 은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53
<표 18> 수도권 대부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55
<표 19> 단계선택법을 통한 변수 선정	56
<표 20> 서울 은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57
<표 21> 서울 대부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58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흐름도	7
<그림 2> 수도권 금융업체 수 변화	17
<그림 3> 은행업체 수 변화	22
<그림 4> 은행 종사자 수 변화	22
<그림 5> 대부업체 수 변화	25
<그림 6> 수도권의 금융 및 보험업 LQ	37
<그림 7> 서울의 금융 및 보험업 LQ	37
<그림 8> 수도권 은행의 커널 밀도 map	41
<그림 9> 수도권 은행 LISA 분석	42
<그림 10> 서울 은행 LISA 분석	42
<그림 11> 수도권 대부업의 커널 밀도 map	46
<그림 12> 수도권 대부업 LISA 분석	47
<그림 13> 서울 대부업 LISA 분석	47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IMF 이후 수축했던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외국 자본의 유입과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산업은 대기업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한 지원이 미미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은 제도 금융권에서 밀려나 제 3금융권, 즉 사금융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 산업의 경우 자금의 흐름이 지역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거리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 내 금융 산업의 발달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금융 산업이 지역에 잘 발달한 경우 지역의 투자와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는 지역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Bais(1992)의 논문에서는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금융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이는 지역이 가진 속성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금융 시장이 지역 단위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제도적인 이유, 정보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지역적 독립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지역성이 존재하면 특정 지역의 금융이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커지게 된다(Bais, 1992; 구재운, 2003 재인용). 이러한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리는 어떠한 지역에 금융기관이 집중하거나 분산하였는지에 따라 행위자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Porteous(1995)는 금융기관과 근접할수록 금융거래에 따르는 정보 및 의사소통, 감시 비용이 줄어들어 금융거래가 수월하다고 주장했다(Porteous, 1995; 구재운, 2003 재인용). 이는 접근성에 따른 금융상품 소비에 차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경우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한 이자나 투자의 이익을 얻기 쉬우며 접근성이 낮은 경우 금융서비스를 통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분포 성향에 따라 지역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의 접근성이 동일하다 해도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접근성이 가지는 특징은 상이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통해 대출이나 투자가 가능한 반면 비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높은 금리로 인해 오히려 금융상품 소비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원리금을 회수가 용이하도록 담보를 통한 대출이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담보 설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연합회의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대출만을 따로 분리해서 본다면 감소폭이 더욱 클 것이라 추정된다(정찬우, 2009).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따라 금융상품 소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분류하여 금융기관 분포에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의 특징에 따른 입지 및 분포의 차이를 알아보고 지역 속성과 금융기관의 분포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첫째, 은행 및 대부업체의 분포를 각각 살펴보고 금융기관이 밀집한 집중지역과 금융기관이 분산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은행 및 대부업체 분포의 지역 간 차이를 알아보고 금융소외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 은행과 대부업체의 분포차이와 지역의 금융 집중 및 소외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속성과 은행 및 대부업체 간의 관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은행과 대부업의 입지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속성과 관련이 있고, 금융기관 성격에 따라 관련이 있는 속성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융이 집중하는 공간과 금융 소외가 발생하는 지역의 속성들 간의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은행과 대부업의 지역적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속성들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금융소외와 지역 내 금융기관 입지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추후 금융제도 실행 시 지역적 특징이 고려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중 대표적인 소비자금융¹⁾ 기관인 은행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둔다. 은행의 경우 표준 산업 분류상에서 ‘일반은행’과 ‘신용조합 및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을 연구대상으로 두었다. 대부업의 경우 금전적인 중개 이외에 신용조사와 추심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기타 여신금융업’과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으로 분리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타 여신금융업’과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을 통합하여 ‘대부업’으로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표1>.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금융 산업의 경우도 수도권 집중률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수도권으로 지정하였다. 금융시장의 지역적 분리를 고려하여 읍면동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1,105개의 행정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읍면동의 경우 지역의 사회·경제적 데이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울의 동 단위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역과 금융기관 입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은행연합회에 회원으로 있는 17개 은행(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저축은행 중앙회에 속해있는 56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²⁾의 지점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과 서울 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이용하였다. 대부업의 경우는 한국 대부금융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의 경우 2012년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경우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데이터를

1) 개인소비자가 소비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대출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최근 신용카드나 팩토링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하였다.

<표 1> 은행 및 대부업의 산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구분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411. 중앙은행	64110. 중앙은행	은행	
			6412. 일반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2. 상호저축은행	64193. 기타 저축기관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5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주심대행업

자료: 한국 표준 산업 분류 9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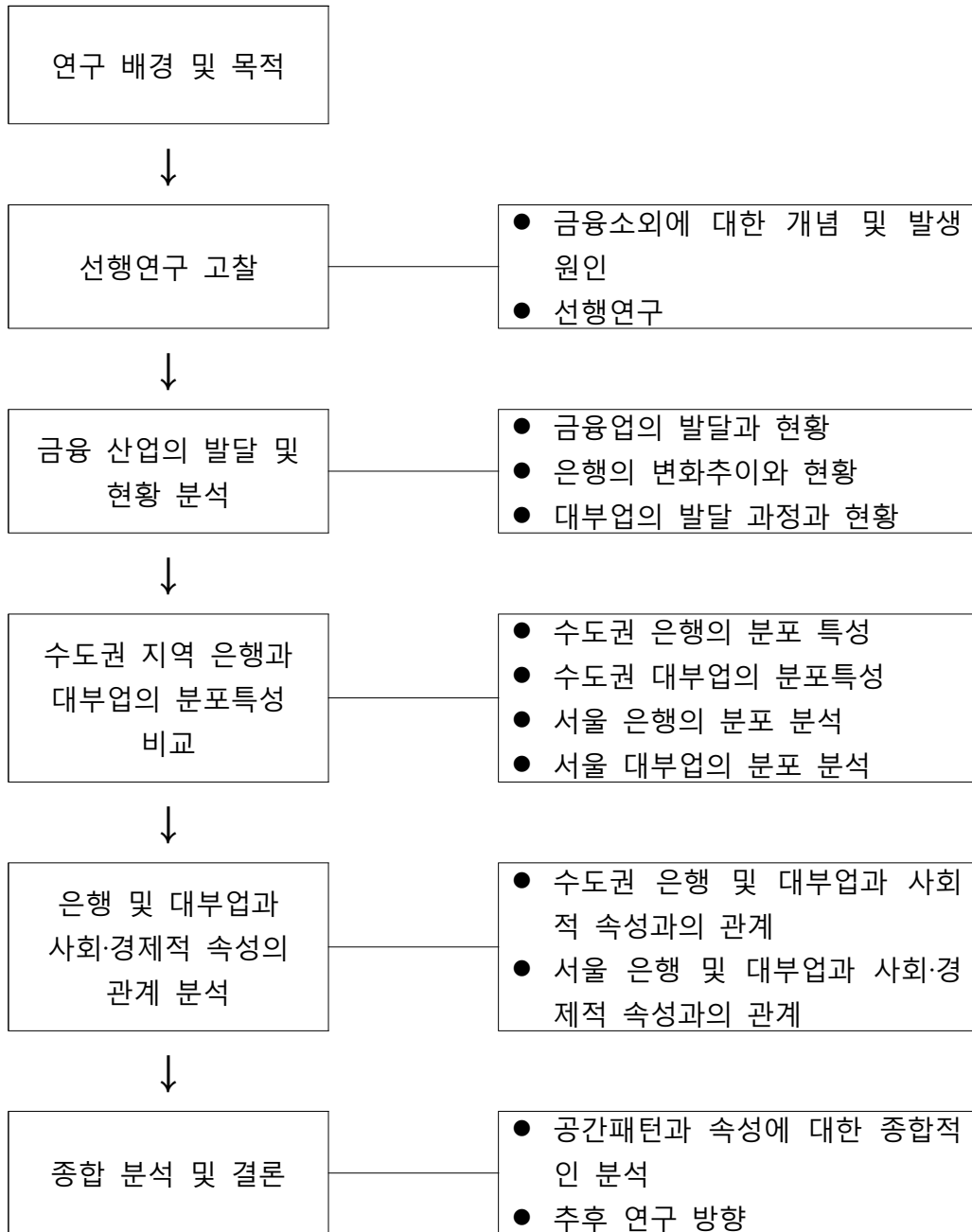
금융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금융집중 및 소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분포와 지역의 금융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금융 집중과 소외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외지역 사례 및 국내 사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은행 및 대부업의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금융 산업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본 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은행과 대부업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도권 지역의 현황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 대부금융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세 번째, 수도권 지역의 은행 및 대부업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속성 간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LQ 지수를 이용하여 수도권 읍면동 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의 특화도를 살펴본다. LQ지수를 금융 및 보험업으로 통괄하여 보는 이유는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읍면동의 경우 대분류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세분류인 은행과 대부업을 따로 분리하여 확인이 어려운 이유로 은행과 대부업 분류가 속산 은행 및 대부업을 기준으로 LQ지수를 산정하였다. LQ지수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 및 보험업의 지역적 특화도를 파악한 후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 중앙회, 한국 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주소자료를 이용하여 은행과 대부업의 공간적 분포 특징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수도권의 은행 및 대부업의 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커널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진행한다. 커널 분석의 경우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은행과 대부업의 밀도 분포를 지도상에 나타내어 비교한다.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의 경우 행정 구역에 국한된 금융 행태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분포 분석을 시행한다.

네 번째,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은행과 대부업체의 수는 2012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나 변수의 경우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을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상관분석을 통하여 분류한 후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과 대부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도출하여 분포 특징과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며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림 1> 연구흐름도

II. 선행연구 고찰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은행 및 대부업의 분포와 관련한 논문을 살펴본 후 금융소의 및 지역금융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하여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금융업의 분포 및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금융업의 분포 및 입지에 관한 기존의 논문들은 대체로 분포 변화나 특정 지역의 입지 원인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금융기관의 입지 변화에 대해 박찬석·이운형(1993)의 연구에서는 대구시를 연구지역으로 하여 은행의 지역별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다. 1988년과 1992년의 입지 분포와 변동을 다루었으며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으로 은행의 입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후 이운영(1997)은 금융기관의 입지변동 요인으로 도로망과의 접근성, 용도 지역과 은행점포, 지가, 인구밀도를 이용하여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금융 분포가 신개발지역과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규모가 소형화되어가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도심의 지가 상승과 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이러한 금융공간의 변동이 야기되었고 고객과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으로 입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재현·김원경(2002)는 IMF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금융공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IMF 이후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금융 공간이 많이 변화하였는데 많은 은행들의 통폐합되는 상황에서도 서울과 대도시로의 점포 집중 심화되었다. 외자유지를 받은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입지 패턴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고소득층을 위한 세분화된 부서의 신설을 통해 은행의 점포가 기능적으로 특화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희연·김은미(1997)은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은행점포의 신설 가능 지역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제학적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은행 점포의 성장이 지역적으로 편재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은행 입지가 가능한 잠재지구를 선정하였다. 임경숙(1997)은 서울시 생산서비스 중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산업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사이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통화 금융 산업의 경우 도심으로의 집중이 높았으나 비통화산업은 낮은 도심 집중률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근접성을 가장 중요한 공간적 집중에 대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원인을 시장이나 정부 및 기업, 고객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도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 다르게 금융기관과 관련한 분포를 행위자의 관점이나 은행 간의 공간적 연결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 최경희(2003)는 은행이 아닌 은행고객 분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분포 패턴과 지리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은행과 1km 내에 전체 고객의 49%가 분포하며 타 은행과 거리가 증가할수록 고객의 거래액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은행과의 접근성과 타 은행과의 거리가 은행 고객 분포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정섭·이호병(2006)의 연구도 은행 점포의 입지에 따라 고객의 점포선택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해 변수를 도출하여 선택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고객이 은행 점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접근성으로 평가하였다. 접근성의 경우 고객이 은행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은행 점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지역과 은행 주변의 토지이용이 주거지역일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이병길(2006)의 경우는 은행 점포의 네트워크의 확대와 은행 실적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회원 은행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대형 은행화 될수록 점포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균형은 개선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 은행의 점포수와 무관하게 점포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량 점포를 주요 금융 핵심 지역에 배치하여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점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금융기관의 공간적 분포나 입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은행의 분포에 관련한 논문들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논문들은 여러 금융 기관 중 하나의 분석 대상만을 분석하거나 소규모의 지역을 기준으로 논문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 특징을 비교하여 확인해보고 은행 및 대부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금융소외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금융소외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 상이하다. 때문에 금융소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해당 연구에 관한 기존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융소외에 대한 개념

금융소외(금융배제, financial exclusion)라는 용어는 지리학자 Leyshon와 Thrift(1994)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들은 지역의 금융 인프라가 폐쇄되면서 금융 커뮤니티에서 소외되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고 금융소외를 빈곤하고 불우한 사회적 그룹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설명했다. 조복현(2008)은 제도 금융권에서 예금 계정 개설이나 대출서비스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와 제도 금융권에 접근은 허용되나 서비스의 종류나 수량, 비용 등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금융소외로 규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현영진(2008)도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현상을 금융소외의 개념으로 보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 대책’에 따르면 금융 산업의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탈락하거나 뒤쳐진 계층에 대하여 금융소외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보고서에서는 금융소외에 대한 개념을 광의의 금융소외와 협의의 금융소외로 정의하였다. 광의의 금융소외란 정부 혹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접근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의 금융소외란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김문길(2010)의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통용되는 금융소외의 개념에 대하여 언급했다. 해당 논문에서는 금융소외를 ‘사람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류시장의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의 접근과 그 사용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김문길;2010).

금융소외에 대한 개념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지역적인 개념보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규정된 부분들이 많으며 금융소외에 대한 지리적 개념은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지리적 개념의 금융소외 정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규정하기에 기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외에 대해 앞서 언급한 논문들과 같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지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2) 금융소외 관련 연구

금융소외라는 어원이 지리학에서 시작한 것과 다르게 금융소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에 초점을 둔 것들이 대부분이다. 금융소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도 미미한 실정인데 기존의 논문들도 대부분 지역경제학이나 금융학에서 다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외국의 금융소외 연구 사례로는 Leyshon과 Thrift(1994)이 영국과 미국의 금융소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금융 산업의 발달과 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가 점점 금융배제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의 지리적 차이가 커지고 불균등한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가난하고 불우한 그룹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은행의 지점 폐쇄가 가난한 주민들이 밀집하여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시민권(financial citizenship)’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금융 인프라가 사라진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시설

과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체국을 통한 금융지원을 제안하였다. 김문길(2010)은 유럽의 금융소외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U 국가 내에서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특성으로 유자녀 여성, 저 소득자, 실업자, 65세 이상의 은퇴자, 취업직전의 청장년층으로 꼽았으며 교육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유럽에서의 금융소외는 양질의 직업, 주거, 교육, 의료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배제를 뜻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소외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논의로만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종현(2005)의 논문에서는 미국의 낙후지역의 금융소외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낙후된 지역의 금융배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저소득에서 비롯되지만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과 중산층의 교외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금융배제가 해당 지역을 넘어서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책 제고를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소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지역보다 개인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송민아(2005)는 저소득층의 경우 개개인의 인적자본이 시장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 자영업 창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창업 준비 시 보증이나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기관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금 부족의 문제를 거론하며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영진(2008)은 금융소외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조사가 없기 때문에 금융소외 현상을 개념에 입각하여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대신 신용등급을 통해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이 5분위 이하, 하위 신용등급인 7~10등급을 금융소외층으로 보았

다. 또한 지불능력이 있는 정상 채무자의 경우도 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금융소외 계층 내 분리를 통해 각기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동익(2012)은 금융소외 가계의 부채를 다루었는데 금융소외의 원인을 소득수준의 감소와 대출로 형성된 악성 부채로 보았다. 또한 금융소외를 계층별로 나누어 해당 계층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금융소외의 원인에 대해 박철(2007)은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거래 기여도를 핵심으로 하는 고객평가가 저소득층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 지식의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금융소외로 내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자산의 부족을 들었다. 그 이유로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신용과 거래를 통한 대출을 이용하여 자산의 증식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러한 자산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금융소외라는 단어의 시작이 금융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차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에 반해 대부분 금융소외 계층이나 개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이나 개인보다는 금융소외가 발생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I. 금융 산업의 발달 및 현황

본 장에서는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추이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업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살펴본 후 은행과 대부업으로 분리하여 그 발달과정과 은행 및 대부업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금융업의 발달 및 현황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경제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 하에 진행되었다. 금융에 관한 규제권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과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정부가 통화금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은행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은행업을 제외한 비은행금융기관과 직접 금융시장의 발달은 매우 미약하였다. 1965년 금리현실조치화가 시작 된 후 은행은 사금융(대부업)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면서 사금융 시장이 축소되었으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금융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70년대 비은행금융기관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1971년 한국투자금융회사를 시작으로 1973년 리스회사, 1975년 종합금융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1970년대 후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80년대 이후 금융업의 자율화를 통하여 전국은행,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1982년 제 2금융기관의 금융 산업 진입이 수월해지면서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제 2금융권 은행의 설립이 가능했는데 이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선진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와 경쟁체제 구축에 의한 금융자율화가 시작

되면서 다양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최진배,1992).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의 역사 중 금융자동화기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전국 금융업체수는 15,157개, 종사자 수는 341,775명이었다. 2010년 기준 현재 전국의 금융업체는 21,030개로 38.7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종사자수의 경우는 279,602명으로 18.1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융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자화되면서 이전에 비하여 인력의 필요가 적어진 데 기인한다. 수도권 금융업의 경우 1993년 5,550개의 업체 수에서 2010년 9,256개로 66.77%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종사자 수의 경우 1993년 174,363명에서 2010년 158,936명으로 8.85%의 감소율을 보여 전국보다 낮은 인력 감축의 모습을 보였다<표 2>.

이는 전국 대비 수도권 금융 관련 비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1993년도의 경우 전국대비 수도권 금융업체는 36.6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 44.01%의 증가율을 보였고 종사자 수의 경우도 51%에서 56.84%로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중 서울의 금융업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으며 경기도의 경우 업체수가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작은 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대비 수도권의 금융업 비중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금융업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도와 인천 순이다.

<표 2> 금융 산업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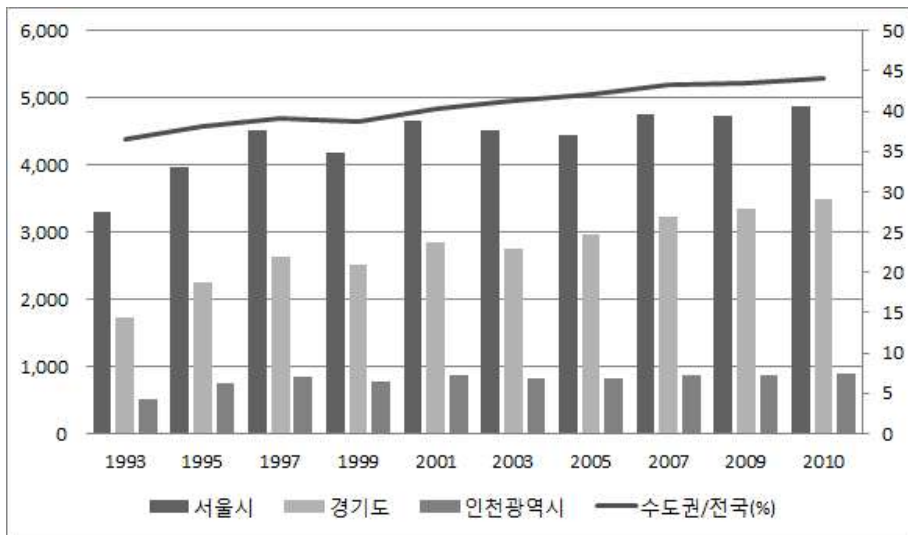
		1993	2010	증감률(%)
전국	사업체수	15,157	21,030	38.75%
	종사자수	341,775	279,602	-18.19
수도권	사업체수	5,550	9,256	66.77%
	종사자수	17,363	158,936	-8.85%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표 3> 전국 대비 수도권 금융업 비율 변화

수도권/전국	1993년	2010년
사업체수(%)	36.61	44.01
종사자(%)	67.91	56.84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2> 수도권 금융업체 수 변화

2. 은행의 발달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은행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 말부터이다. 개항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들어오면서 은행이 확장되었으며 주로 일본의 주도하에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시기 금융권 장악을 위하여 특수 금융기관을 설립하였고 일반은행의 설립과 재편을 허용하였다. 또한 여러 특수 금융기관과 은행의 설립을 통하여 일본 주도의 은행산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대부분의 은행이 폐쇄하게 되었고 이북지역의 은행도 거의 모두 폐쇄되어 남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집중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되었다. 1954년 은행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통화위원회에 의해 통제 및 감독되는 금융 민주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실행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화된 은행들을 다시 국가 소유 아래 두었는데 정부에 의해 선별된 대규모 산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여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정부가 선별한 기업에 대한 금융적 혜택은 지속되었다. 1967년 대구에서 지방은행이 신설되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성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사금융이 성행하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금융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정리하고 이를 산업자본으로 돌려 사금융을 흡수하고자 ‘8.3’조치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금융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가 개선되었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 동원의 역할을 했던 은행이 1980년대 인위적인 금융정책의 부작용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실물경제에 비해 발전이 더디게 되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은행의 적응력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성장과 부실은행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신용카드와 신탁업무가 실시되었으며 업무 증가에 따라 고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점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정부에서는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직접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은행의 업무가 더욱 확대되어 투자 및 신탁업무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전자금융 서비스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외 자본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 및 내국인의 국외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IMF로 인한 금융 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개방이 앞당겨지게 되었으며 외국은행의 국내법인 설립이 허가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일반은행의 다양성이 증가하였고 담당 업무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장태영,2005)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은행은 총 7534개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저축은행과 같은 신용조합 및 저축은행의 수를 합하면 약 9,000여개가 넘는 은행이 존재한다.

은행 점포수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은행이 19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2000년 10,213개였던 일반은행의 수는 2001년 6,142개를 급속하게 하락하며 1993년 85.12%였던 전체 금융업 대비 은행의 비율도 74.27%로 감소한다. 이러한 원인은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의 다양화와 대형은행의 통폐합 때문이다. IMF 이후 은행의 통폐합과 기업 구조 조정이 시작되면서 금융 부분에서 628개의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되는 구조조정을 겪었다. 1999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통합되었고 2001년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합병되었다. 또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을 통해 KB국민은행으로 통합되면서 IMF 이후 8년 만에 26개의 은행이 11개로 감소하였다<그림 3>.

1993년 15,157개였던 전국은행은 2010년 21,030개로 증가하여 38.75% 증

가율을 보였으며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56,9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경기와 인천지역 은행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경기 지역의 경우 두 배에 가까운 은행 수가 증가 하였고 인천지역의 경우도 전국 평균 증가율을 능가하는 71.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의 경우 31.6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보다 낮아 수도권 지역으로의 은행 집중 경향은 심화되었으나 서울지역의 은행 집중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경기나 인천지역의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통해 주거인구나 상업시설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4>.

2012년 6월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일반은행은 총 7,642개이며 이중 57.45%인 4,391개가 수도권에 분포하여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220개의 지점과 신탁 및 새마을금고는 1,539개가 수도권에 입지했다.

은행기관의 종사자 수의 경우 1993년을 정점으로 급감하였으나 IMF 이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IMF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감축되고 이후 금융 전자화로 인해 발달된 ATM기기나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으로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전국 대비 수도권 은행 종사자 수의 경우도 1999년 43%의 비중으로 최하 비율을 보였고 2010년 52%로 증가하면서 종사자 수 역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하지만 전국 은행 종사자 수는 1993년에 비해 2010년 36.41% 감소하였다. 경기와 인천지역의 은행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에 반해 서울에서 41.31%의 종사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적은 26.55%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인 은행 종사자수의 감소에도 수도권 지역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5>.

<표 4> 은행업체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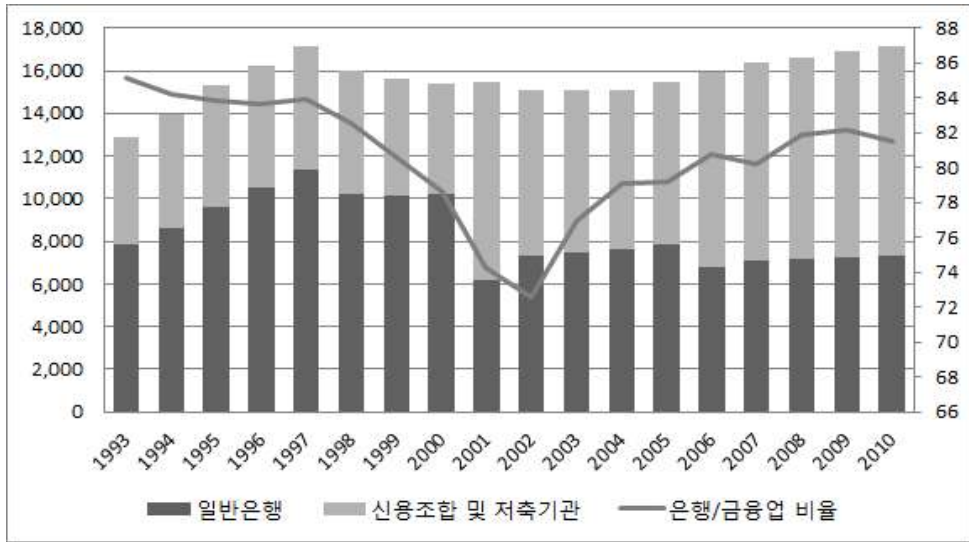
		1993	2010	증감률(%)
전국	사업체 수 계	15,157	21,030	38.75
수도권	사업체 수 계	4,512	7,080	56.91
	서울	2,629	3,461	31.65
	경기	1,462	2,898	98.22
	인천	421	721	71.26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표 5> 은행 종사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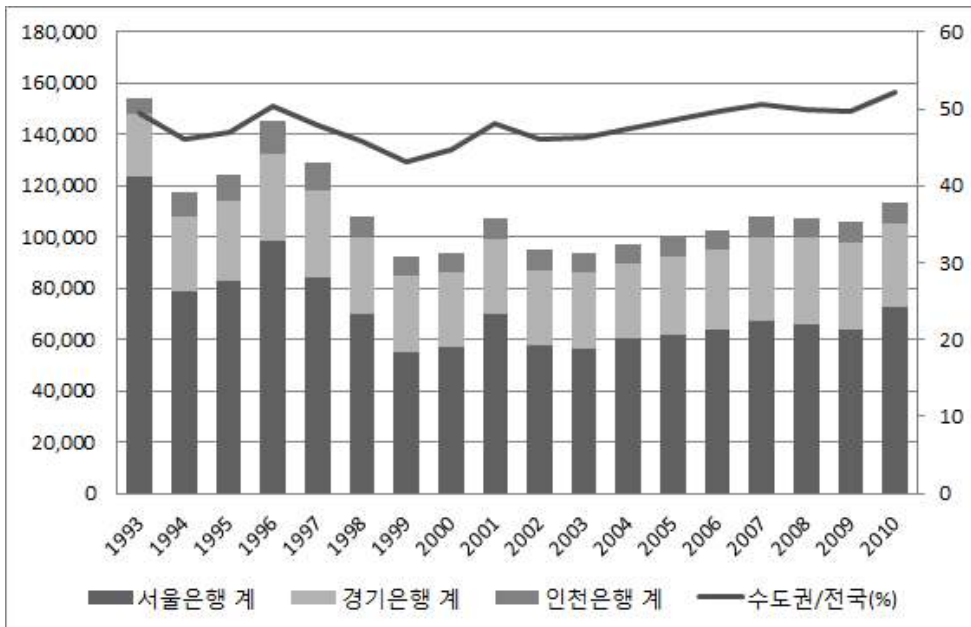
		1993	2010	증감률(%)
전국	종사자 수 계	341,775	217,326	-36.41
수도권	종사자 수 계	154,258	113,302	-26.55
	서울	123,278	72,357	-41.31
	경기	24,817	32,676	31.67
	인천	6,163	8,269	34.17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그림 3> 은행업체 수 변화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그림 4> 은행 종사자 수 변화

3. 대부업의 현황 및 추이

대부업은 사금융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및 중개업을 뜻한다. 사금융시장의 범위는 공인되지 않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교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계의 경우도 사금융에 포함된다.

대부업이 정착된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개발 초기에 산업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61년 ‘예금 및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금융이 성행하였다. 1960년대 정부 개입으로 인해 제도금융기관의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사금융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금융이 발달하게 된 원인으로 이전 우리나라에 산업구조와 제도 금융기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1960년대 초까지 농업경제사회 중심이었던 당시 산업구조에 반해 정부의 감독 아래 운영되던 은행 및 타 금융기관은 대기업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차입자의 대부분이던 중소기업, 농민, 소비자의 금융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제도적 금융기관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비제도적 중개기관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었다. 제도금융기관의 경우 담보설정이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담보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 크기 때문에 제도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의 대출에 대해 제한적이었다. 또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저축 자금의 성장이 미미하여 자금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힘들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사금융 시장이 지속되고 발달하였다. (정은균, 2002)

우리나라 대부업 발달은 여타 금융업과는 차이가 있다. 비제도권 금융기관이었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이 IMF로 타격을 받는 시기에 대부업 시장은 IMF로 인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안정성 강화로 인해 밀려나는 자금 수요자들을 수용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공포되어 정부에서 대부업

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자 등록 대부업체 수가 급감하였다. 이로 인해 음성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부업체 역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금융업 대비 대부업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경제 위기 시기부터 2002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법률개정 공포 후 급감하였다. 하지만 1993년과 2010년 대부업체를 비교해보면 대부업체의 수가 매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의 대부업의 경우는 114%가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은 155% 증가하였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의 경우 156%, 인천 181%, 인천89%가 증가하였는데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업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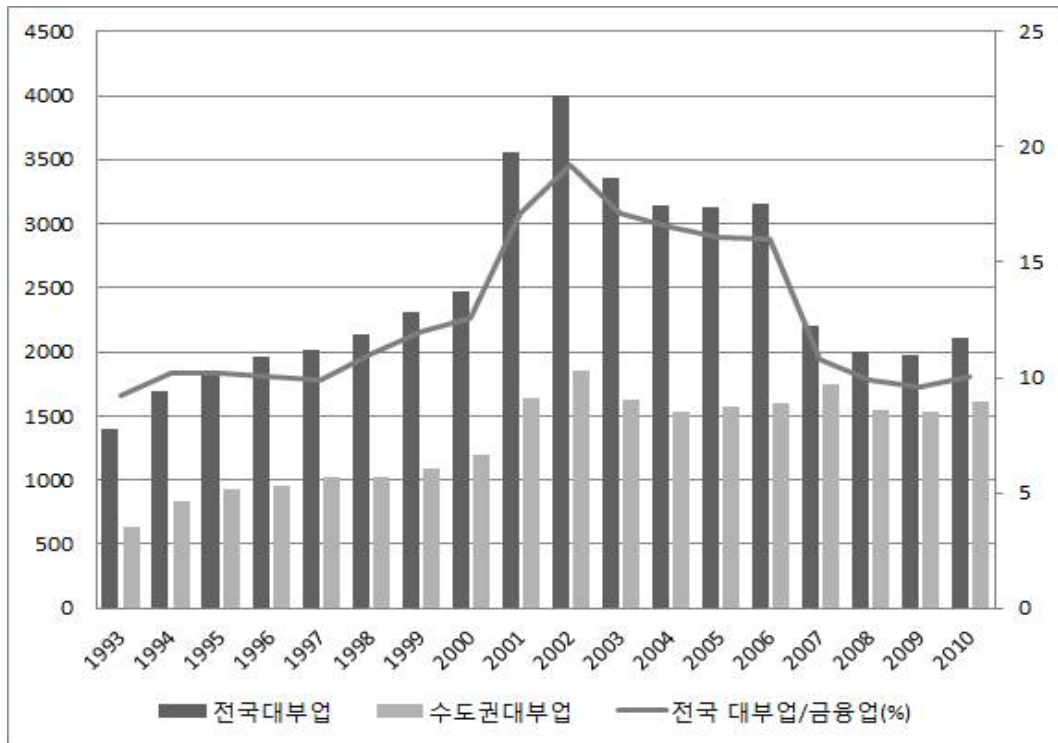
전국 대부업체 수의 변동은 경제 상황이나 법률 변동에 대해 변동이 큰 반면 수도권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아 수도권의 경우 대부업에 대한 고정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4,309개, 경기 2,529개, 인천 574개의 대부업체가 위치하여 등록업체의 60.3%가 수도권에 집중해있다<그림 5>.

최근 3년간 대부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 간의 차이가 보이는데 업체와 직접적인 돈거래가 오가는 대부업의 경우 수가 줄고 있으며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연결하는 대부 중개업의 경우는 업체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부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10년 7월 이전 49%였던 최고 금리가 2011년 6월 39%로 하락하면서 개인 대부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되자 안전하고 상환율이 높은 담보 대출의 비중이 늘어나며 신용대출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표 7>.

대부업의 성장은 업체의 특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내는데 광고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는 대형 법인 대부업의 경우 2009년 약 150만 명이

있던 거래자 수가 2011년 약 23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대부잔액 역시 5조 5천4백억에서 8조 2천2백억으로 증가하였다.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전체 대부업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래액 대부 잔액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8>.

최고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상황 악화와 담보 부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금수요자들이 대부업 물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부업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마련이 5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업자금, 타 대출 상환, 물품구매 순이며 대출자 직종은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학생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표 9>.



자료: KOSIS, 사업체 조사

<그림 5> 대부업체 수 변화

<표 6> 대부업체 증감률

		1993	2010	증감률(%)
전국	사업체 수 계	1,398	3,005	114.9499
수도권	사업체 수 계	633	1,615	155.1343
	서울	394	1,010	156.3452
	경기	166	467	181.3253
	인천	73	138	89.0411

자료:KOSIS, 사업체조사

<표 7> 대부업체 수 증감률

	'09.12말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증감률
대부업	10,904	11,423	9,985	9,505	8,762	-7.8%
대부중개업	1,804	2,007	2,196	2,257	2,175	-3.6%
대부.대부중개 겸업	2,075	1,950	1,833	1,622	1,549	-4.5%
합 계	14,783	15,380	14,014	13,384	12,486	-6.7%

출처: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표 8>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단위 : 조원, 만 명)

	'09.12말	'10.6말	'10.12말	'11.6말	'11.12말	증감률
법 인	5.54 (150.5)	6.42 (174.0)	7.13 (204.4)	8.19 (231.8)	8.22 (236.6)	0.4% (2.1%)
자산100억원 이상	5.02 (139.1)	5.92 (167.4)	6.56 (196.8)	7.60 (224.9)	7.65 (230.1)	0.7% (2.3%)
자산100억원 미만	0.52 (11.4)	0.50 (6.6)	0.57 (7.6)	0.59 (6.9)	0.57 (6.5)	-3.4% (-5.8%)
개 인	0.38 (17.0)	0.39 (15.4)	0.44 (16.3)	0.45 (15.7)	0.49 (15.6)	8.9% (-0.6%)
합 계	5.92 (167.5)	6.81 (189.4)	7.57 (220.7)	8.64 (247.4)	8.72 (252.2)	0.9% (1.9%)

* () 안은 거래자 수

출처: 금융감독원, 2011년 대부업 실태조사

<표 9>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별 신규대출

(단위 : 억 원, %, %p)

	대출목적					합계	(비중)
	생활비	사업 자금	타대출 상환	물품 구매	기타		
회사원*	8,738	630	2,525	273	1,932	14,099	(63.8)
자영업	1,262	2,159	584	106	585	4,697	(21.3)
학생·주부	899	75	114	7	189	1,285	(5.8)
기 타	330	913	76	300	383	2,002	(9.1)
합 계	11,230	3,778	3,300	686	3,089	22,083	(100.0)
(비중)	(50.9)	(17.1)	(14.9)	(3.1)	(14.0)	(100.0)	-

* 회사원에는 공무원 포함

※신규대출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69개사의 '11년 하반기 중 신규대출액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2011년 대부업 실태조사

IV.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의 분포 특성

금융업은 각 부분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며 소비 및 생산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경제의 주요 부분이자 일반 재화 산업에 대한 보완 산업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산업이다(산업연구원, 1986).

본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 될 공간 패턴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 본 후 LQ지수를 통해 수도권의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특화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을 은행과 대부업으로 분류하여 공간통계분석(Spatial Statistics Analysis)을 사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금융기관의 분포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LQ지수²⁾의 경우 세세분류를 통하여 은행이나 대부업의 특화도를 알아봐야 하지만 통계 자료상 읍면동 단위로는 대분류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금융업이 속해있는 대분류인 금융 및 보험으로 통괄하여 특화도와 은행과 대부업의 공간분석을 비교하였다.

은행과 대부업의 공간 분포 특성은 점 패턴 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방법으로 진행한다. 점 패턴 분석은 커널밀도(Kernel Density)이용하여 은행과 대부업의 밀집도를 알아본다.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은 Global Moran I 지수를 산출한 후 국지적 Moran I인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이용하여 HH, HL, LH, LL의 군집패턴 특징을 확인하였다. HH의 경우 높은 값의 클러스터이며, LL의 경우는 낮은 값의 클러스터로 볼 수 있다. HL은 높은 값이 낮은 값으로 둘러싸인 경우를 말하며 LH는 이와 반대로 낮은 값 주변으로 높은 값들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공간적 군집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2) LQ지수(금융 및 보험업 특화도) = $\frac{i\text{지역 금융 및 보험업}/i\text{지역 금융 및 보험업}}{i\text{지역 총사업체}/\text{전국 총사업체}}$

1. 분석방법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점 데이터를 이용한 패턴 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점 패턴 분석방법으로 커널 밀도(Kernel Density)를 사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 패턴을 알아본다. 공간적 자기 상관의 방법으로는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이용하여 은행 및 대부업의 공간적 군집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커널 밀도(Kernel Density)

커널 밀도 분석은 분석대상에 대한 연구지역 전체의 밀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지리학 제 1법칙³⁾ 하에서 특정 격자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대역폭을 설정하고 대역 폭 내에 포함된 점의 개체를 기준으로 하여 격자의 밀도를 조정한다. 때문에 국지적 밀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건이나 개체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된다. 커널 밀도의 추정 자체가 점 개체가 발생하는 점과 거리에 따라 가중치가 고려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조락현상이 발생한다. 보통 밀도 추정을 위하여 가우시안 커널 밀도함수를 사용하며 특정 p지점에서의 밀도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⁴⁾

$$\hat{\lambda} = \frac{n}{a} = \frac{no.[S \in A]}{a} \dots \dots \text{수식 2}$$

3)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 있으나 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Everything is related everything else, but near things are more related than distant things.” W. Tobler(1970)

4) 이희연·심재연, 2011, ‘GIS 정보학’, 법문사, pp379~380

여기서,

$no.[S \in A]$: 연구지역 A에서 나타나는 패턴 S에서 관측된 사건의 수

a : 연구 지역의 면적

$$\hat{\lambda}_p = \frac{no.[S \in C(p,r)]}{\pi r^2} \dots\dots \text{수식 3}$$

여기서, $C(r,p)$: 특정지점 p를 중심으로 반경 r에 해당하는 커널

본 논문은 반경을 km^2 단위로 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커널분석은 연구 지역의 크기에 따라 지역단위를 선정해야하는데 지역 단위 설정이 연구 지역의 크기에 비해 대역폭이 작거나 넓을 경우 밀도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커널 밀도함수는 지리학적 시각화(geovisualization)의 관점에서 점이나 선의 객체를 변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쉽게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지구 입지분석에서 많이 사용된다.

2) 공간적 자기 상관 분석

공간적 자기 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공간적 데이터가 먼 거리에 위치한 데이터 보다 더 유사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로 Tobler(1970)의 지리학 제 1법칙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공간적 자기 상관이란 인문·사회적 또는 자연적 현상들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갖는 상호의존성 및 상호작용을 뜻하며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실체(spatial entities)들이 위치의 유사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실체들이 갖는 값의 유사성도 또한 높아 가는 현상이다(Anselin and Bera, 1998: 김광구, 2003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Moran(1948)이 제시한 I지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방법은 서열자료나 등간자료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간적 자기상관 측정 방법이다.

Moran I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유사한 값을 가진 지역이 얼마나 군집하여 있는지, 혹은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Moran I 지수는 연구지역의 전반적인 값을 비교하여 산출하는데 1과 -1 사이에서 값이 정해진다. 이때 연구지역 전체에 유사한 값이 나타날수록 1에 가까운 양(+)의 공간상관, 연구지역 사이에 서로 다른 값들이 존재 할수록 -1에 가까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Moran I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Moran, 1948, 재구성)

$$I = \frac{N \sum_{i=1}^n \sum_{j=1}^n w_{ij} (X_i - \bar{X})(X_j - \bar{X})}{W \sum_{i=1}^n (X_i - \bar{X})^2} \dots\dots \text{수식 4}$$

여기서, N : 연구 지역의 수

\bar{X} : 전체 연구지역의 평균값

X_i : i 지역의 속성

X_j : j 지역의 속성

w_{ij} : i 지역과 j 지역 사이의 가중치

W : 가중치의 합

본 논문에서는 inverse distance 방법을 진행하였는데 이 방식은 가까운 지역이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게 받게 된다. 여기서 가중치는 거리의 역함수로 가까운 지역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계산한다.

Inverse Distance Weighted의 식은 다음과 같다.

$$\hat{Z}_0 = \frac{\sum_{i=1}^n w_i Z_i}{\sum_{i=1}^n w_i} \dots\dots \text{수식 5}$$

여기서, \hat{Z}_0 : 가중치

i : 영향 범위 내에 해당하는 샘플점

w_i : 가중치 $\frac{1}{d_{io}}$ (d_{io} : 점 i 와 점 o 사이의 거리)

Moran I 지수는 전체 연구지역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글로벌 지수(global index)이기 때문에 연구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지역 내에서 공간적 자기 상관의 위치가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지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국지적 변이를 고려한 시각적 지표가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분석이다. (Getis and Ord, 1992; Anselin, 1995; 김광구, 2003) LISA 분석은 각 지역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값의 공간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주어진 연구지역의 모든 지점에 대한 LISA의 합은 전역적 Moran I와 비례한다.

Local Moran I의 식은 다음과 같다. (Anselin, 1995)

$$I_i = Z_i \sum_j w_{ij} Z_j \dots\dots \text{수식 6}$$

여기서, $Z_i \cdot Z_j$: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W_{ij} : 표준화 된 가중치

국지적 Moran 지수와 Moran 산점도(Moran scatter plot)는 개별 지역의 공간적 자기 상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이다. Moran 산점도는 은 Moran's I 통계량이 지역 i의 변수 값 x_i 와 지역 j와 인접한 지역들에서의 변수 값 x_j 의 공간가중평균값 W_{ij} 와의 선형관계로 나타난다. Moran 유의성 지도는 Moran 산점도와 LISA의 통계적 유의성 결과의 결합으로 나타낸다(하창현, 2006). Moran 산점도는 사분면 상에서 나타나는데 1사분면은 HH로 높은 속성 값의 정적인 자기상관, LL은 낮은 속성 값의 정적인 자기 상관을 의미하며 HL과 LH의 경우 부적인 자기상관을 나타낸다 <표 10>.

<표 10> LISA의 유의수준에 따른 공간적 상관관계 유형

		High p value	Low p value
Local Moran I	High p value	정(正)적인 공간적 상관 (+ +)	부(負)적인 공간적 상관 (- +)
	Low p value	부(負)적인 공간적 상관 (+ -)	정(正)적인 공간적 상관 (- -)

출처: 하창현(2006)의 내용을 재구성

HH의 경우 해당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그 주변에도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경우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LL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지역 주변에 낮은 값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HL은 해당 지역의 속성 값은 평균보다 높는데 주변지역이 평균보다 낮을 경우를 말하며 LH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의 주변으로 평균보다 높은 속성 값의 지역이 나타는 경우로 설명한다<표 11>.

LISA분석 통하여 지역의 속성 값에 따른 군집형태를 확인하고 국지적인 지역의 공간적 상관성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지도화 할 수 있다.

<표 11> 공간적 자기상관의 유형 및 해석

구분	설 명
H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다 높은 값 주변에 평균보다 높은 값이 있음 (cluster of high values) ▪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은행 혹은 대부업의 밀집도가 모두 높음
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다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있음(cluster of low values) ▪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은행 혹은 대부업의 밀집도가 모두 낮음
H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다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있음 (outlier in which a high values is surround by primarily by low values) ▪ 해당 지역의 은행 혹은 대부업의 밀집도는 높고 인접지역의 밀집도는 낮음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다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있음 (outlier in which a low values is surrounded primarily by high values) ▪ 해당 지역의 은행 혹은 대부업의 밀집도는 낮고 인접지역의 밀집도는 높음

출처: 강창덕, 장명준(2011)의 내용을 재구성

2. 수도권 금융 및 보험업의 분포 특징

금융업의 경우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분포하지만 여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집적하거나 분산하여 분포하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44.01%의 사업체와 56.84%의 고용이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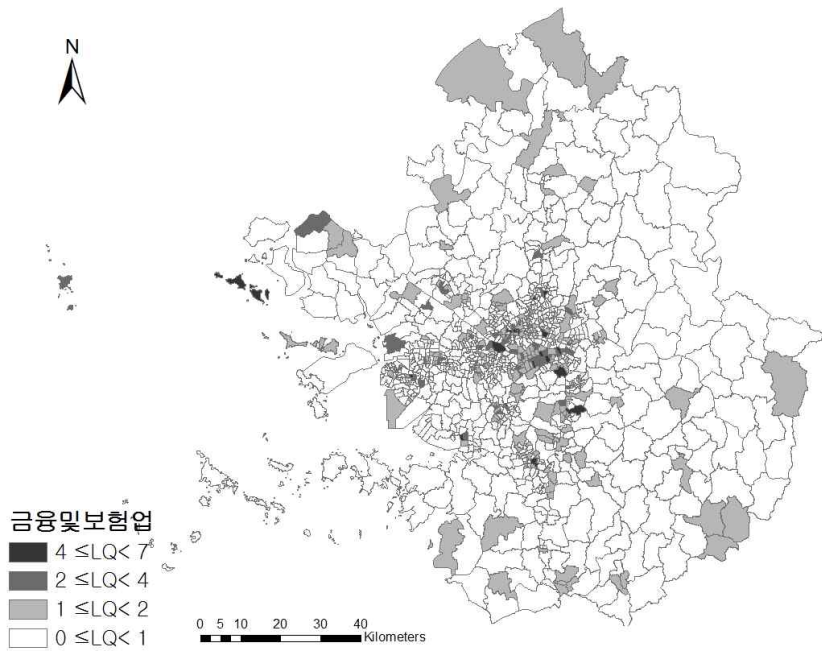
LQ 지수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의 특화도를 확인 할 수 있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특화된 곳은 서울의 경우 명동으로 6.93의 값으로 가장 특화도가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의도 역시 금융 및 보험업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이 특화된 지역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전 지역에 걸쳐 매우 넓고 특화도가 높은 지역 간에 연속성이 있지만 강북지역의 경우 강남지역에 비해 면적이 작고 특화도가 높은 지역들이 연속적이지 못한 특징을 보인다<그림 7>.

경기도 및 인천 지역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특화도가 가장 높은 곳은 달안동으로 6.94의 값을 가진다. 경기 인천지역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이 특화된 지역이 있기도 하나 경기 외곽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금융 및 보험업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고도로 발달된 산업인데 반해 생활에 필요한 필수 기초 인프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 특징이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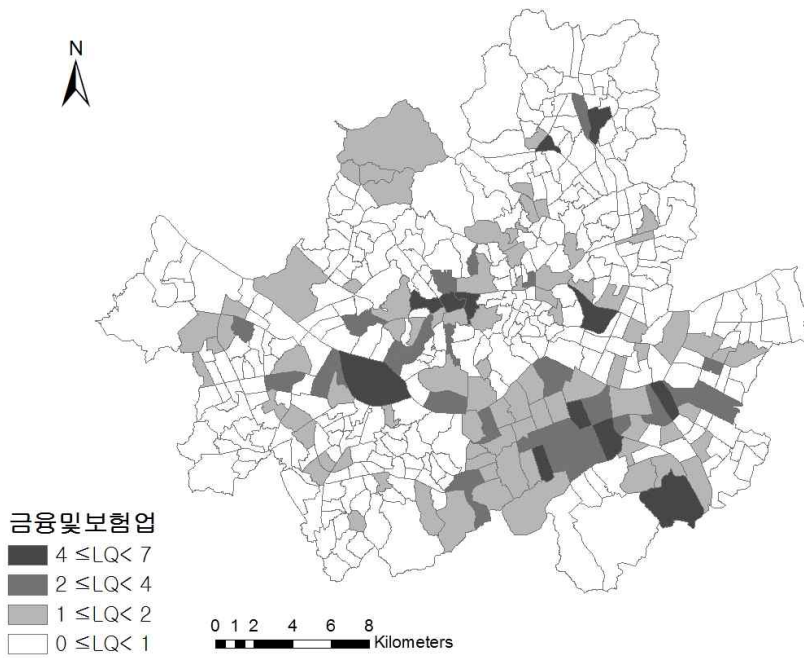
또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의 경우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금융 및 보험업의 특화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금융 및 보험업체의 개수가 2개 밖에 되지 않지만 여타 다른 산업의 발달이 미미한 관계로 LQ지수가 6.22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인 금융 및 보험업의 특화도는 서울 중심가나 수도권 지역의 중심지

역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서울에서 멀어 질수록 특화도가 떨어지며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나타나는 금융 및 보험업 특화 지역은 금융 및 보험업체의 수를 확인하였을 때 절대적인 수치가 매우 작게 나타나며 전반적인 산업의 발달이 미미한 상황인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그림 6> 수도권 금융 및 보험업 LQ



<그림 7> 서울의 금융 및 보험업 LQ

<표 12>수도권 금융 및 보험업 특화지역

수도권 금융 및 보험업 특화 지역		
4≤LQ<7	서울	명동(6.93), 소공동(6.56), 용답동(6.30), 상계6·7동(6.08), 잠실6동(5.64), 여의동(5.38), 번1동(5.30), 대치2동(5.11), 서초2동(4.80), 세곡동(4.48), 삼성2동(4.43), 층현동(4.28)
	경기	달안동(6.95), 고잔1동(5.40), 인계동(5.13), 서현1동(4.10)
	인천	인천: 서도면(6.23), 주안1동(5.11)
2≤LQ<4	서울	서울: 대치1동(3.81), 사당1동(3.72), 반포2동 (3.51), 사직동(3.35), 남영동(3.34), 역삼1동(3.34), 역삼2동(3.27), 화곡6동(2.99), 이촌1동(2.97), 대치4동(2.92), 창4동 (2.82), 잠실7동(2.82), 오륜동(2.78), 도곡1동 (2.78), 목1동(2.76), 삼성1동(2.75), 도화동 (2.63), 당산2동(2.61), 압구정동(2.49), 송인2동(2.43), 잠실4동(2.34), 당산1동(2.33), 방배2동 (2.29), 도곡2동(2.23), 잠실3동(2.23), 서교동 (2.21), 성내2동(2.10), 공덕동(2.10), 용강동 (2.08), 가회동(2.06), 서초4동(2.04)
	경기	경기: 의정부2동(3.89), 상동(3.84), 장항2동(3.82), 심곡1동(3.73), 안양8동(3.70), 안양5동(3.68), 마두2동(3.39) 고잔2동(3.35), 인창동(3.18), 범계동(3.08), 의정부3동(3.02), 수진2동(2.94), 사우동(2.36), 중1동(2.35), 부흥동(2.30), 삼평동(2.21), 주엽1동(2.10), 신흥1동(2.03)
	인천	청라동(3.93), 부평1동(3.44), 구월1동(3.18), 주안4동(3.12), 주안6동(2.66), 양사면(2.26), 연평면(2.10)
1≤LQ<2	서울	반포1동, 서초1동, 방배4동, 잠실2동, 청담동, 광장동, 수유3동, 등촌3동, 불광1동, 목5동, 둔암2동, 영등포동, 논현2동, 아현동, 갈현1동, 용신동, 필동, 이태원1동, 반포본동, 서초3동, 반포3동, 회현동, 서빙고동, 구로3동, 잠실본동, 천호3동, 남현동, 진관동, 구로5동, 논현1동, 문정2동, 방이2동, 화곡3동, 상암동, 신대방1동, 왕십리도선동, 성북동, 신월3동, 잠원동, 노량진2동, 상봉1동, 대흥동, 종로1·2·3·4가동, 대림2동, 자양3동, 청량리동, 중림동, 답십리1동, 낙성대동, 길동, 석촌동, 일원2동, 신도림동, 장안1동, 가락본동, 신정6동, 불광2동, 길음1동, 창신1동,

	<p>우장산동, 한강로동, 일원본동, 양재1동, 능동, 삼선동, 방배3동, 신촌동, 상봉2동, 신사동, 천호2동, 방배본동, 구의1동, 반포4동, 난향동, 서원동, 행당1동, 삼각산동, 길음2동, 수서동, 남가좌1동, 방배1동, 발산1동, 명일2동, 행당2동</p>
경기	<p>야탑1동, 신평동, 권선1동, 송내동, 창전동, 상1동, 왕징면, 하안1동, 비전2동, 철산3동, 성북동, 포천동, 덕풍3동, 호평동, 화정1동, 심곡2동, 구미동, 정자3동, 수택1동, 서정동, 부림동, 중앙동, 우만2동, 동백동, 수내1동, 안성1동, 정자1동, 별양동, 보산동, 태평2동, 갈현동, 안양3동, 단대동, 호수동, 비전1동, 중4동, 구갈동, 조원2동, 동탄1동, 금촌2동, 운중동, 중리동, 풍덕천2동, 율면, 신봉동, 관인면, 판교동, 안양4동, 동탄2동, 보정동, 경안동, 화정2동, 수내2동, 세류1동, 매산동, 철산2동, 양동면, 광정동, 상3동, 통북동, 우정읍, 금곡동, 신서면, 안성2동, 산북면, 안양6동, 안중읍, 상2동, 동구동, 주엽2동, 궁내동, 향남읍, 자금동, 광명3동, 신장2동, 하안4동, 백현동, 교문1동, 도촌동, 영통2동, 김포2동, 화서2동, 신장1동, 마두1동, 행궁동, 장호원읍, 하안2동, 서농동, 능곡동, 전곡읍, 안양1동, 문산읍, 파장동, 정자2동, 중앙동, 우만1동, 설성면, 이매1동, 신흥2동, 양평읍</p>
인천	<p>북도면, 송도동, 계산4동, 송해면, 부평4동, 부평5동, 학익2동, 신포동, 강화읍, 동춘3동, 도화1동, 계산2동, 송림2동, 화수1·화평동, 백령면, 삼산2동, 송림6동, 송림4동</p>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3. 은행의 분포 특징 분석

우리나라의 은행은 현재 일반은행과 신용 조합 및 저축은행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은행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17개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중앙회에 속해있는 56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을 통합하여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두었다.

GIS 9.3.1을 사용하여 커널 밀도(Kernel Density)분석과 Inverse Distance 방식을 사용한 LISA를 통해 분석하였다. Kernel지수의 경우 거리의 가중값을 반영하여 밀집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지역단위를 km^2 으로 두어 결과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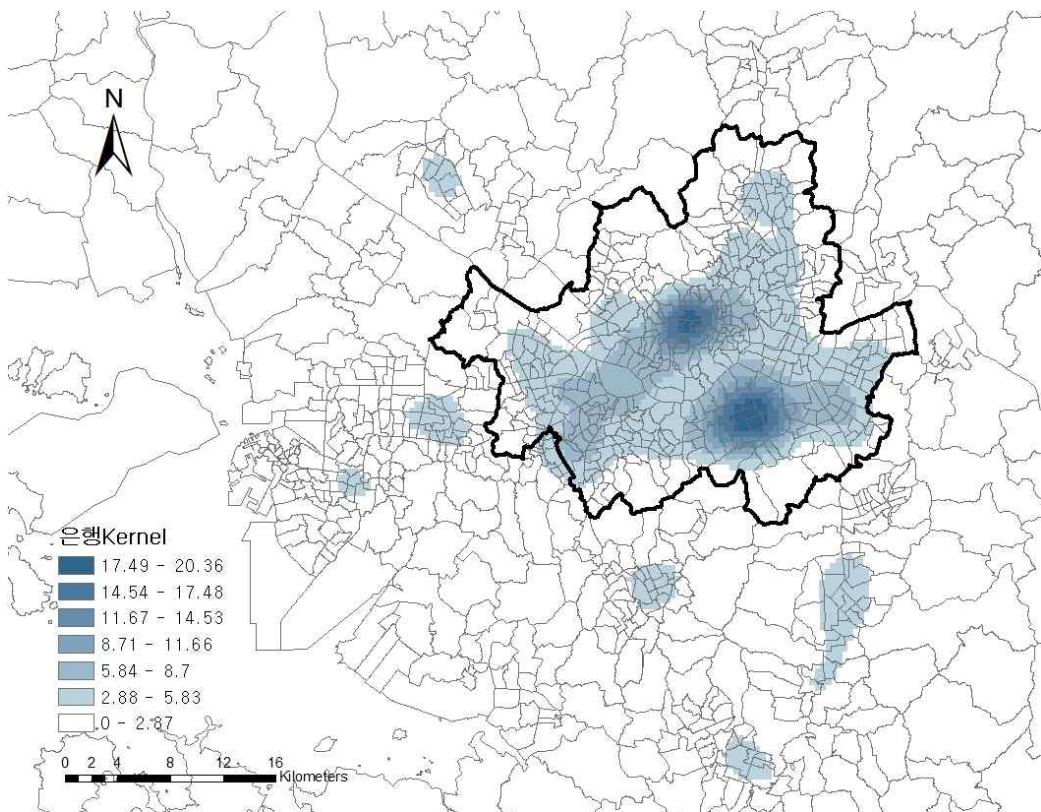
수도권 은행의 커널 밀도를 보면 명동과 종로 1·2·3·4가동, 을지로동의 서울의 강북 도심지역이 가장 높으며 강남의 경우 역삼동 지역인 강남 중심지의 밀도가 높다. 강북 지역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는 지역의 분포는 여의도방향으로 이어지며 강남의 경우 송파구 방향으로 비교적 높은 밀도가 연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일산의 주엽동과 마두동 일대의 밀도가 높으며 경기 남부 지역은 성남 신시가지·수원시·안양시·부천시 일대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의 경우는 교통편이 발달한 간석동, 주안동을 중심으로 밀도가 높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밀도가 높는데 반해 서울 외곽지역의 밀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및 인천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도권에서도 서울 지역에 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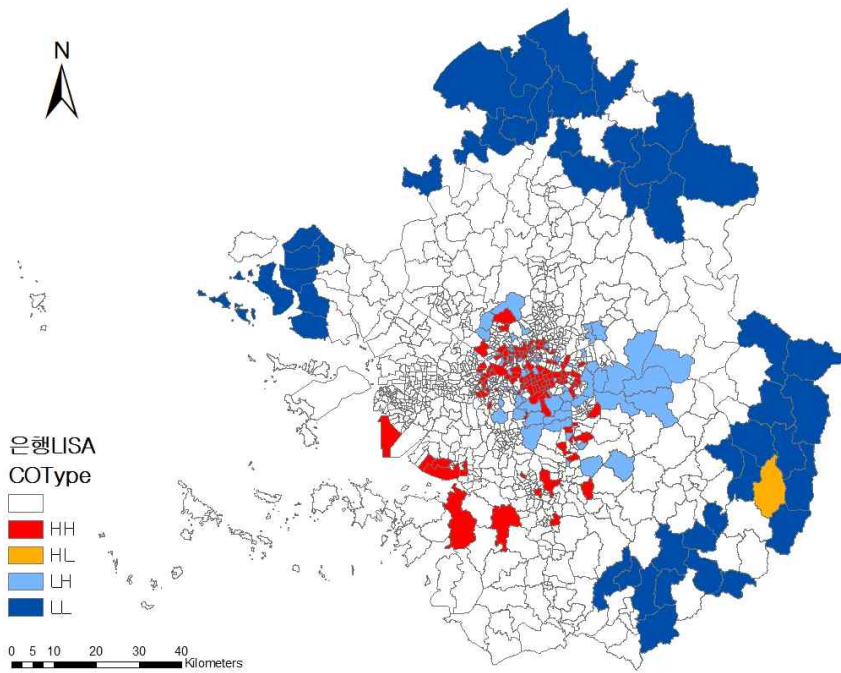
수도권 은행의 Global Moran I 분석 결과 I지수는 0.06의 값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LISA를 이용한 공간의 군집패턴을 보면 HH유형은 수도권 121개 행정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중 98개가 서울에 위치하면서 서울 지역의 군집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0>의 경우 수도권 LISA 분

석에서 서울지역을 확대한 지도로 서울지역 중에서도 도심을 중심으로 HH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 도심지역에서 HH유형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L유형의 경우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HL유형은 여주읍 한 군데에서만 확인되며 LH유형의 경우 서울에서는 HH 유형 주변 중심지 지역에서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은 최근 여주에 대규모로 입지한 아울렛과 주변 지역의 발달로 인한 것으로 추측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의 동남쪽 방향으로 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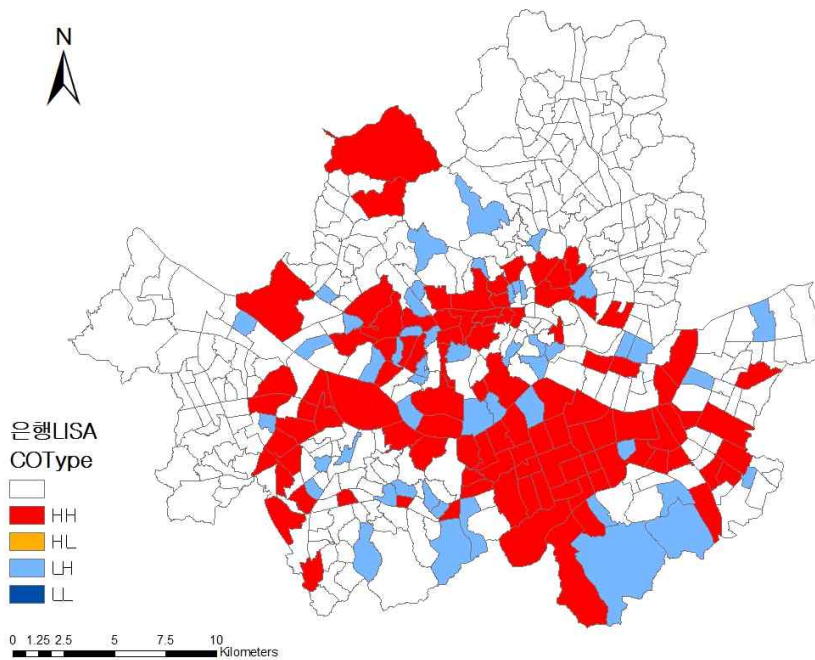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수도권 은행이 집중되는 지역과 소외되는 지역의 패턴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소외지역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림 8> 수도권 은행의 커널 밀도 map



<그림 9> 수도권 은행 LISA 분석



<그림 10> 서울 은행 LISA 분석

<표 13> 은행 LISA 결과 지역구분

		지역	
HH	서울	길동, 잠실3동, 잠실2동, 잠실6동, 잠실4동, 잠실본동, 문정2동, 가락2동, 가락본동, 삼전동, 석촌동, 오금동, 오륜동, 대치2동, 청담동, 압구정동, 개포4동, 도곡2동, 도곡1동, 역삼2동, 역삼1동, 대치4동, 대치1동, 삼성2동, 삼성1동, 논현2동, 논현1동, 양재2동, 양재1동, 방배4동, 방배본동, 반포4동, 반포3동, 반포2동, 반포1동, 반포본동, 잠원동, 서초4동, 서초3동, 서초2동, 서초1동, 신사동, 중앙동, 노량진1동, 흑석동, 사당1동,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2동, 당산1동, 여의동, 시흥1동, 가산동, 구로2동, 구로5동, 구로3동, 신도림동, 목5동, 목1동, 아현동, 공덕동, 상암동, 서교동, 대흥동, 용강동, 연희동, 신촌동, 충현동, 진관동, 불광1동, 삼선동, 안암동, 장안1동, 답십리1동, 제기동, 용신동, 청량리동, 광장동, 구의3동, 화양동, 성수2가3동, 행당1동, 한남동, 한강로동, 이태원1동, 이촌1동, 남영동, 신당1동, 을지로동, 광희동, 필동, 명동, 회현동, 소공동, 이화동, 종로5·6가동, 종로1·2·3·4가동, 사직동	강북 도심, 강남 도심, 여의도 일대
	경기	동탄1동, 남양동, 봉담읍, 동백동, 정왕1동, 부림동, 별양동, 호수동, 초지동, 원곡본동, 고잔2동, 철산3동, 삼평동, 금곡동, 구미동, 야탑1동, 서현1동, 수내1동, 상대원1동, 원천동, 인계동, 정자1동	수원·안산·성남·화성 중심지
	인천	송도동	신도시 일대
LH	서울	고덕1동, 잠실7동, 거여1동, 풍납1동, 세곡동, 수서동, 개포1동, 신사동,내곡동, 방배2동, 삼성동, 성현동, 은천동, 남현동, 사당5동, 사당4동, 대림2동, 신길7동, 신길5동, 가양3동, 신정2동, 연남동, 망원1동, 신수동, 염리동, 북아현동, 북가좌1동, 천연동, 정릉3동, 돈암1동, 전농1동, 능동, 군자동, 금호4가동, 금호1가동, 응봉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2동, 용문동, 효창동, 후암동, 중림동, 신당3동, 송인1동, 창신3동, 창신2동, 명륜3가동, 무악동, 부암동	서울 중심지 주변 지역
	경기	양서면, 중부면, 남종면, 퇴촌면, 죽전2동, 모현면, 초이동, 춘궁동, 감북동, 천현동, 청계동, 지금동, 양정동, 조안면, 문원동, 과천동, 중앙동, 화전동, 창릉동, 효자동, 석수1동, 백현동, 분당동,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복정동	경기도중심 주거지역
HL	경기	여주읍	소비지역

LL	경기	지평면, 양동면, 청운면, 단월면, 북면, 하면, 장남면, 중면, 신서면, 왕징면, 미산면, 백학면, 청산면, 군남면, 연천읍, 강천면, 북내면, 대신면, 흥천면, 능서면, 점동면, 화현면, 관인면, 이동면, 일동면, 영중면, 신북면, 고삼면, 삼죽면, 일죽면, 양성면, 금광면, 보개면, 울면, 모가면, 대월면, 군내면, 백암면	수도권 외곽지역
	인천	서도면, 삼산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양도면, 화도면	수도권 외곽 해안인접지역

4. 대부업의 공간적 분포 특징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관련 교육을 거친 뒤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읍면동 대부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부 금융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대부업도 앞의 은행과 같이 GIS 9.3.1을 사용하여 커널밀도 분석과 LISA 분석의 Inverse Distance 방식으로 수도권 은행의 Global Moran I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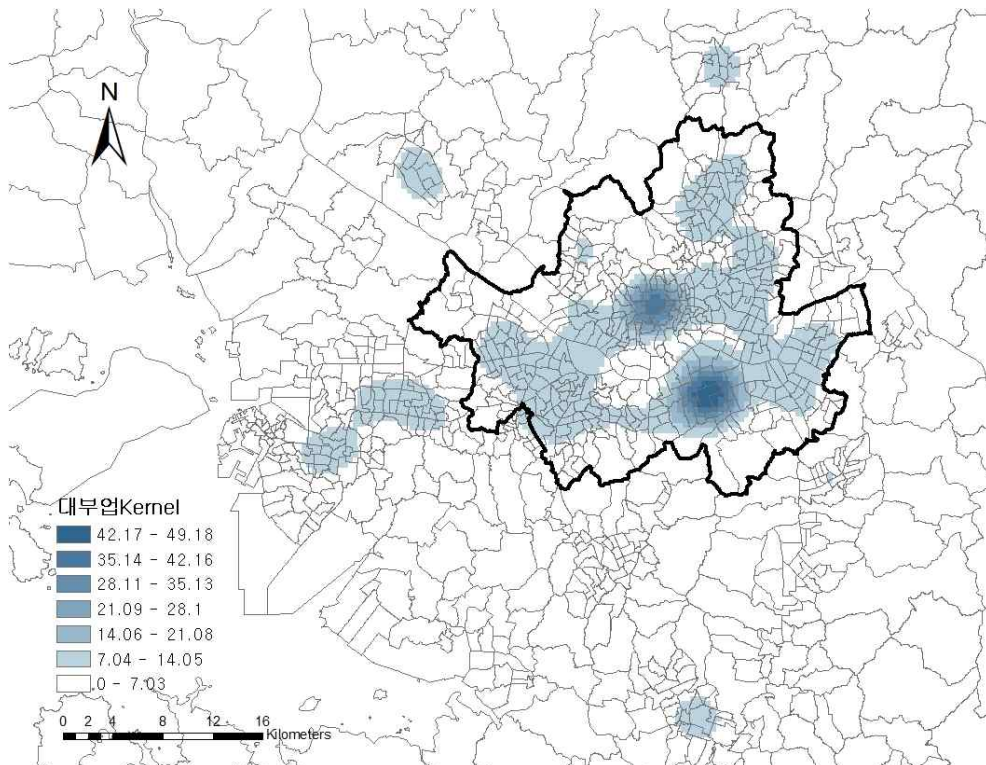
커널밀도 분석의 경우 강북에서는 명동, 종로 1·2·3·4가동, 을지로동 일대의 밀도가 가장 높으며 강남의 경우 역삼동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가 나타난다. 서울지역 내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는 지역은 강북·강남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에 집중해있으며 다음으로 도심 주변 변화가 일대에서 높은 밀도의 패턴을 보인다. 경기 지역의 경우 수원시 매탄동 주변, 부천시 상동 일대, 일산 마두동과 장항동 지역, 의정부 주변에서 특징적인 밀도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당 지역의 중심 시가지인 경우이거나 교통 요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 지역은 주안동과 간석동 일대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밀도 패턴은 부천시와 연결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그림 11>.

LISA분석으로 살펴 본 수도권 대부업은 Moran I 지수가 0.03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림13>의 경우 수도권 대부업의 LISA 분석을 서울지역만 따로 확대한 것으로 HH유형 분포는 커널 밀도 분석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에 있으며 강북 및 강남도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여의도 부근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신촌·홍대 주변이나 서울 동북부 주거 단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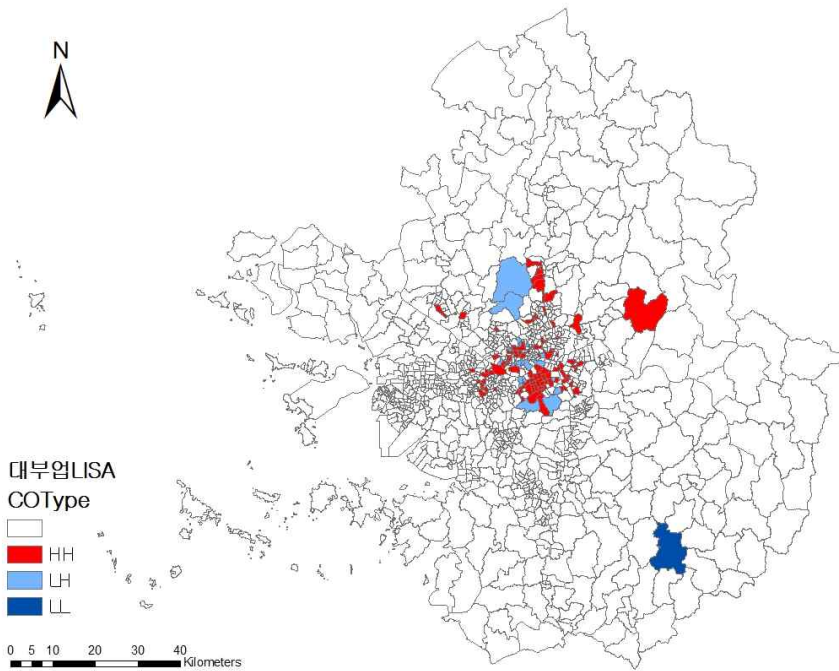
경기 및 인천지역 일부에서 HH유형을 볼 수 있으나 매우 낮은 비중을 차

지하며 대부분이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해당 지역의 교통 요지이거나 중심지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 서북부에 위치하여있다. 또한 수도권 전역에서 HL유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HH유형이나 LL유형도 은행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LH유형의 경우도 거의 서울의 도심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특징적인 지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LL유형은 경기도 백암면 한곳에서 나타난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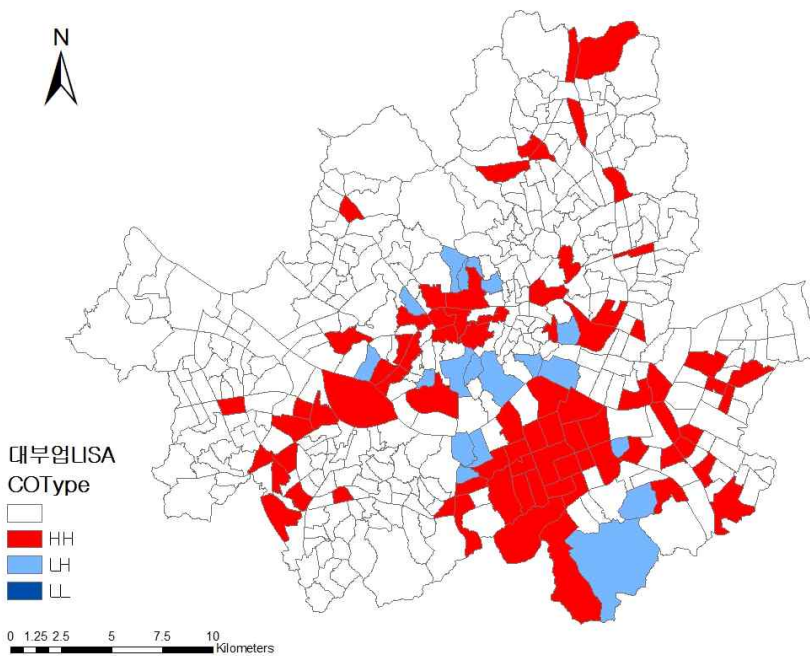
대부업의 경우는 은행에 비하여 지역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업이 집중되는 지역은 은행에 비하여 수가 작지만 서울 중심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반면 소외지역이라고 구분할만한 명확한 군집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대부업의 분포가 은행에 비하여 고르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수도권 대부업의 커널 밀도 map



<그림 12> 수도권 대부업 LISA 분석



<그림 13> 서울 대부업 LISA 분석

<표 14> 대부업 LISA 결과 지역구분

		지역	
HH	서울	길동, 천호2동, 성내3동, 성내2동, 잠실6동, 잠실본동, 장지동, 가락본동, 석촌동, 송파1동, 방이2동, 대치2동, 청담동, 압구정동, 수서동, 도곡2동, 도곡1동, 역삼2동, 역삼1동, 대치4동, 삼성2동, 삼성1동, 논현2동, 논현1동, 양재2동, 양재1동, 방배4동, 방배2동, 반포4동, 반포1동, 잠원동, 서초4동, 서초3동, 서초2동, 서초1동, 신사동, 사당1동,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1동, 여의동, 가산동, 구로2동, 구로5동, 구로3동, 신정4동,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 용강동, 충현동, 대조동, 공릉1·3동, 상계1동, 도봉2동, 창4동, 수유3동, 수유1동, 번1동, 상봉2동, 장안1동, 용신동, 청량리동, 자양2동, 구의3동, 중곡2동, 용답동, 행당1동, 한강로동, 광희동, 필동, 명동, 회현동, 소공동, 종로1·2·3·4가동, 사직동	강북 도심, 강남 도심, 여의도주변, 일부 부도심
	경기	화도읍, 동구동, 백석2동, 장항2동, 화정1동, 호원2동, 가농1동, 호원1동, 의정부2동	경기 서북부 주거지역
LH	서울	잠실7동, 일원본동, 내곡동, 방배본동, 반포2동, 반포본동, 신수동, 천연동, 성수1가1동, 금호4가동, 사근동, 한남동, 원효로1동, 이태원2동, 용산2가동, 명륜3가동, 이화동, 가회동, 삼청동,	도심 주변지역
	경기	장흥면, 과천동	-
LL	경기	백암면	-

V.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

본 장에서는 은행 및 대부업과의 공간상의 분포에 사회·경제적 속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은행 및 대부업체가 밀집하여 있으나 서울의 경우 더욱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수도권과 서울로 나누어 수도권의 은행 및 대부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속성과 서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로는 은행 수, 대부업체 수와 생산가능 인구, 가구수와 통계 포털의 사업체 조사 자료 및 개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2010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누락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전년도 자료로 교체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언급하도록 하겠다.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19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상관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공선성이 높은 변수들을 제외한 후 단계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다중 회귀 분석의 분석방법을 검토한 후 사회·경제적 속성간의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

1. 다중회귀분석

회귀 분석에는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방법이 있다. 단순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가 하나의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다중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에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단순회귀분석과 매우 흡사하다.

다중회귀분석 식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k X_{ki} + \epsilon_i \quad \dots \dots \text{수식 7}$$

여기서, Y_i : 종속변수 (은행 혹은 대부업체의 수)

a : 상수항

$\beta_1, \beta_2, \dots, \beta_k$: 회귀계수

X_1, X_2, \dots, X_k : 독립변수(설명변수)

e_i : 오차항

다중회귀분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과 후진제거법(backward), 단계적 선정법(stepwise selection)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 선정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진선택법은 종속변수와 최대 상관관계를 가지는 설명변수를 순서대로 추가하는 방법이며 후진제거법은 전진선택법과 반대로 매 단계마다 설명변수를 제거하는 형식을 가진다. 단계적 선정법은 전진선택법과 후진제거법이 결합된 방식으로 전진선택법에 기초하나 후진제거법과 같이 매 분석단계마다 이미 모형에 선택된

변수의 제거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제거된 변수들과 서로 교환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장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의 단계적 선정법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은행 및 대부업과 설명변수인 사회·경제적 속성들 간의 설명력 크기를 확인하고 정(+)적인 상관관계인지, 부(-)적인 상관관계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수도권 은행, 수도권 대부업, 서울 은행, 서울 대부업으로 분류하여 알아본다. 서울과 수도권을 분리한 이유는 전국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은행 및 대부업의 밀집도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에 은행 및 대부업의 밀집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읍면동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는 서울 통계에서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조금 더 세밀한 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함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금융업, 인구 및 주택, 사회·경제적 속성으로 분리하여 <표 15>과 같이 구분하였다. 해당 변수는 은행과 대부업 분석에 따라 다른 변수 선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해당 변수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속성 관계를 파악한 후 서울지역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15>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구분	변수
금융업	은행, 대부업
인구 및 주택	생산가능인구, 가구 수, 주택 수(다세대,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사업체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경제적 속성	지방세 ⁵⁾ , 기초생활 수급자 수 ⁶⁾ , 1m ² 당 아파트 가격

5) 2010년도 자료가 누락된 지역의 경우 2009년으로 대체

6) 2010년도 자료가 누락된 지역의 경우 2009년으로 대체

1)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

수도권 지역의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 선택법을 통해 은행과 대부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산업과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및 가구, 주택에 대해 <표 16>와 같은 변수를 선정하였다. 모든 변수는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16> 단계선택법을 통한 변수 선정

수도권	종속변수	독립변수
	은행 수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생산가능 인구, 가구,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대부업체 수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구, 생산가능인구,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표 17> 수도권 은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도권 은행				
	coef.	T-value	p-value	VIF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체	.348	13.464	.000	2.779
부동산 및 임대업체	.364	10.643	.000	4.858
대부업체	.177	7.066	.000	2.599
단독주택 수	-.051	-2.767	.006	1.401
도소매업체	.072	3.779	.000	1.49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체	.109	3.897	.000	3.265
생산가능인구	-.215	-6.998	.000	3.926
아파트 수	.134	5.023	.000	2.970
adjusted R^2	.738			

수도권 은행과 변수들과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모든 변수는 0.05 이하의 유

의확률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수정된 R 제곱 값이 0.783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부동산 및 임대업체 수, 대부업체 수, 생산 가능인구, 아파트 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체수, 도소매사업체수, 순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단독주택,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다른 변수들과 다르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표 17>.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은행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자본이나 자산을 운영하는 업체 간의 지리적 연관성에 때문인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또한 주택 중에서도 은행과 아파트는 양의 상관관계인데 반해 단독주택의 경우 은행과 음의 상관관계로 지역의 주택 종류에 따라 은행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은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은행이 집중되어있는 도심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적고 대부분이 도심 주변이나 서울 외곽지역에 집중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 대부업의 경우 변수들과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모든 변수는 0.05 이하의 유의확률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수정된 R 제곱 값이 0.643로 은행보다는 낮으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대부업과 관련 있는 변수로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체 수, 부동산 및 임대업체 수, 은행 수, 교육서비스업체 수, 도소매업, 아파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체 수, 단독주택 수 순서로 영향력을 가진다. 이중 주택과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단독주택, 아파트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은행의 회귀분석에서 도소매업과 아파트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주택 종류에 따라 대부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8>.

<표 18> 수도권 대부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도권 대부업				
	coef.	T-value	p-value	VIF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30	10.745	.000	2.892
부동산 및 임대업	.417	10.997	.000	4.409
은행	.246	7.275	.000	3.486
교육 서비스업	-.188	-6.095	.000	2.905
도소매업	-.141	-6.452	.000	1.460
아파트	-.130	-4.982	.000	2.07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0	3.759	.000	3.655
단독주택	-.066	-3.150	.002	1.339
adjusted R^2	.643			

수도권 은행 및 대부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이는 해당 산업의 특징상 자금 유통이 용이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은행과 대부업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도 은행과 대부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원인은 주택 구입이나 관련 사업 진행시 자금 용자가 원활해야하기 때문에 각 산업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은행과 대부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은행의 경우 아파트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단독주택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대부업의 경우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수간의 차이는 지역의 주택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 혹은 비제도권 금융기관 입지에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에 입지하는 금융기관이 제도권인지 비 제도권인지에 따라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매우 상이하다. 때문에 주택의 비율 중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입지하는 금융기관의 종류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금융서비스 이용 종류 및 혜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 서울 은행 및 대부업과 사회·경제적 속성과의 관계

서울의 은행 및 대부업과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했던 방식과 같이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 단계 선택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표 19>는 해당 과정을 통해 선정된 변수를 표로 나타내었다.

<표 19> 단계선택법을 통한 변수 선정

	종속변수	독립변수
서울	은행 수	지방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대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m 당 아파트 가격, 기초생활수급 가구, 교육 서비스업,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대부업체 수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은행, 지방세, 1m 당 아파트 가격, 가구,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울의 은행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R 제곱 값이 0.895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서울의 은행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지방세로 0.567의 표준화 계수 값을 가진다.

오병기(2010)에 따르면 지역소득이 증가 할수록 지방세 역시 증가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며 소득과 지방세는 서로 비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았

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세는 소득과 비례 관계에 있으며 해당 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소득이 많은 지역일수록 은행의 입지에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대부업, 단독주택, 교육 서비스업 순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표 20>.

<표 20> 서울 은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서울 은행				
	coef.	T-value	p-value	VIF
지방세	.567	15.694	.000	3.9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9	4.292	.000	2.7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65	5.428	.000	2.781
부동산및임대업수	.156	4.258	.000	4.031
단독주택	-.057	-2.852	.005	1.186
기초생활가구	-.042	-2.220	.027	1.070
교육 서비스업	.051	1.991	.047	1.931
adjusted R^2	.895			

앞서 수도권 은행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은행도 단독주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지역 내 주택 종류가 어떠한 구성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은행의 입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지표인 지방세는 은행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소득이나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 은행이 입지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이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초생활가구의 경우 은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의 접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21> 서울 대부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서울 대부업				
	coef.	T-value	p-value	VIF
지방세	.334	5.801	.000	4.217
부동산 및 임대업수	.404	7.062	.000	4.1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8	3.913	.000	3.608
1m 당 아파트 가격	-.097	-2.996	.003	1.335
도소매업체수	-.127	-3.883	.000	1.364
주택	-.076	-2.259	.024	1.4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7	3.246	.001	2.613
교육 서비스업	-.105	-2.705	.007	1.920
adjusted R^2	.695			

서울지역의 대부업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역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R 제곱값은 0.695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대부업의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임대업, 지방세,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m 당 아파트 가격, 교육 서비스업, 주택수와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업, 1m 당 아파트 가격, 도소매업, 주택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아파트 가격의 경우 개인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이것이 대부업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주목할 만하다<표 21>. 하지만 다른 경제적 변수인 지방세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나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은행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반대로 대부업의 경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반대되는 관련성을 가진다.

본 분석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와 금융기관 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업체와 관련한 변수들보다 경제적 변수들 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는 지방세와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부업의 경우 아파트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한 금융소외의 개념에 대한 근거로 고려할 만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금융 산업 중 은행과 대부업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해당 업종의 분포 패턴을 확인 및 비교하였다. 분포의 경우 가장 최근은 2012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분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은행과 대부업의 군집패턴에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행과 대부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속성을 도출하고자 단계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설명변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수도권 지역 내에 위치한 은행의 수는 총 7,080개이며 이중 서울 지역의 은행은 3,461개, 경기도는 2,898개, 인천 721개로 33.6%의 수도권 집중률을 보인다. 은행 고용인구의 경우는 전국 217,326명이며 수도권 지역의 은행 고용 인구는 113,302명으로 52.1%의 집중을 보이면서 전국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은행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중도는 1993년에 42%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은행업체나 고용인구 모두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었다. 대부업의 경우도 1993년 서울 394개, 경기 166개, 인천 73개로 총 633개였던 수도권 대부업체가 2010년 1,615개로 증가하여 155%의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은행과 대부업의 변화는 경제상황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비 제도권 금융기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은 지속되었다.

둘째, 은행과 대부업의 분포에 대하여 커널밀도와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커널밀도를 사용한 은행의 분포 패턴은 서울의 경우 외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중심지역이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커널밀도는 은행에 비하여

높은 밀도를 보이는 면적이 작지만 은행과 동일하게 서울의 강북과 강남 도심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및 인천지역의 경우 은행 비슷한 지역에서 높은 밀도를 보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진행하여 Moran I지수를 산출하였으며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통해 은행과 대부업의 공간적 군집 패턴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은행의 경우 HH유형이 대부분 서울에 분포하며 그 중 서울 도심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낮은 값이 군집하는 LL유형은 주로 서울 중심권에서 가장 먼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보였다. 대부업의 경우는 은행보다 특징적인 군집 지역이 적으며 패턴이 단조롭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값이 군집하는 HH유형이 서울 도심지역에서 나타나지만 LL유형의 경우 경기도 백암면 한 곳에서만 나타난다.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HL유형은 나타나지 않으며 LH유형은 서울 중심지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 보인다.

셋째, 은행과 대부업체를 각각 종속변수로 두고 사회·경제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은행과 대부업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변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사업 경영 시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내 주택 형태의 비중에 따라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파트의 경우 은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단독주택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 대부업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수도권 은행 분석에서 은행과 아파트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과과 비제도권 금융기관인 대부업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금융기관의 성격과 상관없이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서울로 범위를 좁혀서 진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위와 조금 다르다. 서울 은행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방세로 이는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의 경우 은행의 입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와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와 멀어지는 금융소외의 기존 개념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 대부업의 경우 아파트 가격과 부적인 영향을 가지며 아파트 가격에 대해 대부업과 은행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아파트 가격 역시 경제적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력에 따른 금융기관의 입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금융기관의 분포와 관련한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부업과 은행의 공간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과 대부업이 높은 값으로 군집하는 지역과 낮은 값으로 군집하는 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 서울 중심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명확하게 지역적 구분이 일어난 반면 대부업의 경우 높은 값으로 군집하는 서울 중심지역을 제외하고 낮은 값의 군집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앞서 정의했던 많은 금융소외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금융기관의 입지에 대한 지역적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변수에 대한 통계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수도권 전 지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서울지역에 집중하여 금융소외에 대해 확인 한 것이 아쉽다.

이에 대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단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변수로 분석을 진행하여 금융소외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접근법이나 분석을 사용하여 추후 지역금융과 금융소외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토연구원, 2004, 공간분석기법, 한울아카데미
- 이희연·노승철, 2012, 고급통계분석론, 법문사
- 이희연·심재연, 2011, GIS 지리정보학, 법문사
- 김기영·전명식·강현철·이성진 공역, 2009, 예제를 통한 회귀분석, 자유아카데미 (= Samprit Chatterjee·Ali S.Hadi, 2006,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강창덕, 장명준,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4호 2011.12 : pp. 175~202
- 구재운, ‘금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개발 연구 제 35권 1호, p.141
- 김광구, 2003, 공간자기상과의 탐색과 공간회귀분석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13권 1호, pp273~306
- 김문길, 2010, 유럽의 금융소외 관련 논의와 대응 방식, 보건복지 포럼 제 160호, p64
- 김태완 외, 2009,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현, 2005, 미국의 낙후지역 금융소외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대응, 국제지역연구, 제 9권 제 2호, pp149~179
- 박찬석·이윤형, 1993, GIS 기법에 의한 은행점포의 입지변동-대구시를 중심으로, 한국지형공간 정보학회지, 제 1권, 2호, pp113~129

- 송민아, 2005, 한국사회의 빈곤, 금융소외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딧, 복지동향, 75호, pp7~9
- 오병기, 2010, 지역 소득 변화에 따른 지방세수 변화 분석, 리전인포— 제 206호
- 이병길, 2006, GIS 공간 분석을 이용한 은행점포 네트워크 평가방법, 국토지리학회지, 제 40호 3권, pp 461~468
- 이운영, 1997, 금융기관의 입지변동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구, 제 17호, pp193~214
- 이정섭·이호병, 2007, 입지특성에 따른 고객의 은행점포 선택요인 차이 분석, 부동산학회, 제 29호, pp166~176
- 이희연·김은미, 1997, GIS기법을 활용한 은행입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공간정보학회지, 제5권 제1호, pp11~26
- 임경숙, 1997, 서울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3호, pp223~250
- 장태영, 2005,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역사와 일반 은행의 발전과정,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균, 2002,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 현황과 축소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찬우, 2009, ‘금융 포커스 : 서민층 금융소외의 원인 및 정책시사점’, 주간금융 프리프, 제18권, 4호, P10
- 조복현, 2008, 한국의 금융배제 실태와 대응책, 금융소외연구 포럼 통권1호, 부록2
- 최경희, 2003, GIS와 공간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은행 고객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재현·김원경, 2002, 외국계 금융자본 유입에 따른 국내 금융공간의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5권 1호, pp49~63

- 최진배, 1992, 우리나라 금융업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개발연구, 제 8권, pp125~158
- 하창현, 2006, 남부권 신 경제권 구상의 필요성과 과제, 경남발전 제 81호, pp3~25
- 한동익, 2012, 금융소외 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현영진, 2008,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기관으로의 흡수방안,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 연구 총서, pp118~159
- 박철, 2007,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BBC, 경제의 최전선에 가다, 리더북스, pp184~205
- 한국산업연구원, 1986,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연구보고서, 제 92호, p122

국외문헌

- Anselin, L. 1995,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 *Geographical Analysis*, 27(2), pp93~115
- Anselin, L. and Bera, A.K., 1998. “Spatial dependence in 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an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in Aman Ullah and David Giles(eds.). *Handbook of Applied Economic Statistics*. New York. pp. 237-289
- Getis, A. and Ord, J. K., 1992 “The analysis of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Geographic Analysis*, Vol. 24, No. 3, pp. 189-206.
- Leyshon, A and Thrift. N, 1994, ‘Geographies of financial exclusion:

financial abandonment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Vol. 20, No. 3, 19, pp.312~341

O’Sullivan, D and Unwin, D. 2010, Geographic Information Analysis ,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Bias, P. V., 1992, “Regional Financial Segmentation in the United
S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3), pp321~334

Porteous, D. J. 1995, The geography of finance: spatial dimensions of
intermediary behaviour, Aldershot, Avebury

Tobler, W.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 (Supplement): 234-240.

홈페이지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KB국민은행 부동산 <http://nland.kbstar.com/quics?page=rstar>

토요경제, IMF 9년 빛과 그림자, 2006년 12월 4일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

Abstract

A Study of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dustries and Financial Exclusion

Moon, Eun Jin

Major in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eumsook)

Finance has been a necessary service for contemporary urban life, and thus the provision of finance services has been concerned as an essential urban infrastructu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s the financial concentration areas and financial exclusion area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money lending business which is considered with informal financial services as well as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banks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institutional financial services. By applying LQ, the spatial agglomeration regions of financial industries are determined in first, and then the density distribution patterns are explored by Kernel density analysis for both financial serv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show

stark differences between the center city and outski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inancial concentration areas present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s while financial exclusion areas appear in the outskirts.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are develop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financial services and geographical variables. Local taxes affect positively in the distribution of the banks and money lending business while the number of basic living security families affects negatively in the case of Seoul.

This thesis is meaningful study in terms of an first attempt of multidirectional empirical analysis for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could be a basis of financial industry location analysis as well as provide directions of locational planning for financial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